

부작용 없는 정교한 로봇수술로 신경 손상없이 절제



건강 바로 알기 전립선암

김민석

조선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서구화된 식습관과 의료기술 및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생존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립선암 환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립선암은 남자에게 있어 위암,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암이지만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려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암으로 인한 치사율이 매우 낮은 암이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격 전이가 없는 초기나 중기의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국소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많이 시행되는 방법은 전립선과 정낭을 적출하고 요도와 방광을 문합하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

남자 위암·폐암·대장암 다음 빈도 치사율 낮아...조기 발견·치료 중요 1cm 구멍 뚫어 시술 출혈 등 최소화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각광

술'이다.

◇전립선과 복강경 수술=전립선은 해부학적으로 남성 골반 내 장기 중 가장 깊숙하고 좁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복수술을 할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출혈이 많아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10cm이상을 절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가 통증이 많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면서, 복강경 수술이 통증과 출혈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복강경 기구의 특성상 관절운동이 되지 않아 젓가락같은 기구로 장기를 자르고 봉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조선대병원 비뇨의학과 김민석 교수가 60대 환자에게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있었다.

또한 전립선 주변으로 남자의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전립선과 요도 주위로 요자체 능력에 중요한 괄약근이 있어 전립선 적출술을 시

행할 경우, 요실금이 생기고 발기능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로봇수술=로봇수술은 1cm 남짓한 구멍만을 6

개 뚫어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적고 복강내 가스압력을 주입시키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적어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또한 3D화면을 통해 수술부위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을 최대한 살리고 요도괄약근은 최대한 보존하여 발기능력과 요자체 능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관절이 없어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인 복강경 수술과 다르게 로봇 팔은 사람의 팔처럼 540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암수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교한 절제술기와 봉합에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전립선암을 활발하게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의 마취도 로봇수술전문 마취교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취를 하고 있다.

또한, 로봇수술도 담당교수가 로봇기구의 설치부터 환자의 수술부위 봉합까지 해당하는 모든 수술과정을 직접 시행, 환자의 전립선암 완치를 위한 최첨단 스마트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국내외 석학 초청 국제심포지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치의학 발전을 위한 '2023 CNUSD(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조직바이오인터페이스연구소, 줄기세포 분비체 연구센터, 전남대 치의학연구소, 전남대 덴탈4D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심포지엄에는 3개 국외 대학(호주쿠데, 베이징대, 하노이 의대)과 6개 국내 대학(부산대, 경북대, 서울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의 치의학전



문대학원이 참여했다. 특히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국내외 연구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치의학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장이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화순전남대병원, 보건의료 원외 대표 회의

내년도 사업 협력 방안 등 모색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2023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2차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필수보건의료 원외대표협의체는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 전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화순군보건소장, 전남지역책임의료기관병원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원주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실

장은 이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개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 현황 ▲화순전남대병원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2024년 사업 방향과 각 기관 간 자원 현황 공유 및 협력방안 등도 모색했다.

정용연 병원장은 "우리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난제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결국 지역민들의 안전망을 창출하는 일이다. 이 자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도입

약품 정확한 투여·효율적 관리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응급의료센터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품을 투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약품관리가 가능한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인터팜(INTIPharm)을 도입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01년 광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후 광주는 물론 전남·북도 지역에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이다. 위급한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지만 응급이나 추가로 처방되는 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심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사전에 등록된 권한자의 지정맥 인증(손가락 정맥박동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후 처방에 따른 약품을 자동으로 인출 관리가 가능한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ADC·Automated drug Dispensing Cabinet)을 도입했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ADC 시스템은 지난 2021년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이다. ADC 시스템은 응급의료센터 내 약품이 담긴 캐비닛에서 지정맥 인증한 후 환자의 처방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산 시스템과 연동돼 곧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권한자 인증에 의한 자동 배출을 통해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약품 보관에서 투약까

지의 전 과정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국 또한 응급·수시 약품 불출 관련 업무가 감소하고, 의약품 추적관리를 통해 약품 관련 업무도 전산으로 가능함에 따라 약품 분배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약제부장은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처방 등 약품 불출 관련 업무가 간소화되고, 유효기간 등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약품 이송 및 공급 업무 자동화로, 환자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